

“เป็นอย่างไรบ้าง พวกเราคิดถึงอาจารย์ครับ”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หวังว่าอาจารย์จะกลับมาช่วยพวกเรา ครับ”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목사가 ‘축복의 씨암 교회’식구들과 함께 24일 주일 저녁에 บ้านสันนา(싼나마을)에 찾아가서 몇 가정과 함께 성탄절을 축복하며 예배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빵교회’하교의 입장도 있어서 ‘Joyful 싼나’에서 모여 예배는 못하고 몇몇 가정만 심방하고 모일 수 있는 분들만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분들이 제게 전해온 인사입니다.

기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함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คริสมาสต์ที่ สันนา 싼나에서의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면서 뜬금없이 웬 크리스마스 타령인가? 하셨을 겁니다.

싼나의 성탄절 소식과 함께 신년 인사를 올리려고 윗 글을 쓰는 중에 지인의 부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주말마다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긴 병으로 누워계셨던 부.모님들의 소천이었습니다. 함께 빈소를 지키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마음에 여유없이 1월을 보내며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박선교사가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의 소개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이유를 들으시곤 “지금은 힘드셔도 떠나지 마시고 꼭 자리를 지키세요. 남편은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몇 년 전 편찮으셨던 시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위기를 넘기셔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답니다. 두 주간 더 상태를 지켜보며 어느 정도 나아지신 것 같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는데 공항에서 가방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비행편 바로 수배해서 그 가방 그대로 들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드셔도 떠나지 마시고 꼭 자리를 지키세요.”라는 그분의 말이 제겐 작게나마 위로가 되더군요!

어머니는 2월 초 검진 결과 폐와 복부에 암이 전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항암치료를 해도 완치는 안 된다는 담당의의 소견에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어차피 처음 진단이 나왔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인데도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은 카톨릭병원 내의 ‘호스피스 완화 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힘겨운 시간인걸 알기에 오히려 작게나마 마음에 여유를 갖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쓰러지지않고 버틸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설 연휴 며칠 지난 출근길에, 신호대기로 서 있던 제차를 뒤에 과속으로 오던 차가 급제동 하며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친 데는 없지만 경차를 트럭이 받아 차가 많이 손상되긴 했었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이겠지만 1,2월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야 겨우 소식을 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Kelly & Jeremy